

World Trends Around Packages

패키지를 둘러싼 세계의 동향

모리 / (주)패키징 · 스트레이티지 · 재팬 대표이사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유럽 위원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패키지 규제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2019년 발효된 EU와 일본의 경제연계협정(EPA)으로 일본은 인구 5억 초과, 세계의 GDP 22%를 차지하고 있는 EU시장의 개입을 노렸으나 이후 더욱 엄격화된 EU시장의 패키지 규제에 일본에서의 수출품도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반대로 EU 제품은 낮은 관세 장벽 아래에서 과잉된 엔 저하로 인해 대량으로 일본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는 EU 초콜렛 과자나 스낵 식품, 치즈 등 유제품, 화장품이나 퍼스널케어 제품 등이 스토어 진열장이나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에 진열되면 일본 국산품은 커다란 영향을 입게 될 것이다. 일본 기업은 EU 전략을 냉정하고 적합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검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본서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말에 거쳐 이어져 제안된 유럽 위원회의 패키지 규제 개정의 전략에 대해 적어 본다.

1. 유럽 위원회 포장 · 포장폐기물 지령(PPWD) 개정의 '목표'

EU의 PPWD는 2018년 12월 시행된 이후 유럽(탈퇴가 없는 한 EU가맹 27개국+영국·노르웨이·스위스 30개국을 가리킨다)의 패키지 폐기물 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지향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의 발생 방지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용으로 포장 폐기물을 회수, 분별 재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 서클러 이코노미의 실현을 목표로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유럽의 패키지 폐기물 삭감량은 정체되어 중요한 지표의 하나인 플라스틱 패키지의 리사이클 율은 2020년 40%에 도달해 이대로는 2025년 목표인 50%에 도달할 수 없을 듯하다.

여기서 유럽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0일에 [지령: Directive]를 [지령: Regulation]으로 격상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해 폐기물 삭감을 철저히 하는 제안을 채택, 유럽 의원에 상정하였다. 주요한 것은 아래 3가지로 2023년 내 유럽 의원과 가맹 각국의 입법부에서 가

결되면 빠르면 일부 2024년,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 중심이 되는 일본 기업에 있어서는 엄격한 것이 있다.

1) 포장 폐기물 삭감의 수치 목표를 설정한다: 2021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는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삭감한다. 특히 SUP 지령을 강화하여 폐기 패키지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패키지 설계의 요건을 엄격화한다: 모든 패키지를 REUSE · 리사이클 가능으로 설계하여 EU 전역에 넓게 유통시킨다.

- 리사이클성 기준을 설정한다. (예: A-D는 리사이클 가능, EPR의 효율에 반영된다. E 판정은 리사이클 불가로 사실상 시장에서의 유통이 곤란하게 된다)
- 플라스틱 패키지에는 재생재(PCR)의 함유율을 정한다. (예: 패키지에 의해 2030년까지는 최저 10-30%, 2040년까지는 최저 50-60%)

3) 확대 생산자 책임(EPR)법에 에코 모듈레이션을 도입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정한다.

- EPR의 효율은 리사이클 성, PCR 함유율, 패키지 소재에 의하여 결정된다. (상정된 효율은 $200 \sim 2000 + \frac{1}{\text{톤}}$).
- 각 패키지에 경량화의 저감 기준을 설정한다.
- 패키지에 EU 공통의 표시 의무를 실행한다. (예: 패키지의 소재나 PCR함유율, REUSE나 리사이클의 여부 등)

2. 유럽 위원회, 식품 포장에 재생재 사용의 길을 열어준 전략은 좋은 것일까?

EU는 순환경제행동계획(CEAP)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일환으로써 2025년까지는 재

[그림 1] 페플라스틱 식품포장의 리사이클로 향한 산적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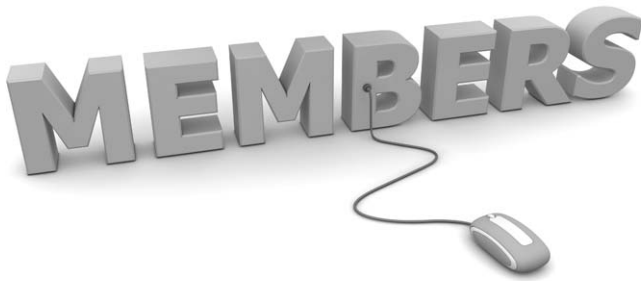


출처: AIMS(유럽브랜드협회)의 클린한 재생 재료와 FOOD의 안전 가이드

생 플라스틱의 EU시장을 1,000만 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각의 시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EU의 플라스틱 수요 40%를 점하는 패키지의 재생재 컨텐츠 의무화다. 특히 지난해 10월 유럽 위원회가 발표한 식품 포장에도 재생 재사용을 재촉하는 제안은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식품 포장은 패키지의 50%를 넘는 최대 섹터이며 또한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케이스도 상정되므로 안전·안심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이는 EU 전문가에게도 신중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미 식료용 PET 보틀은 100% 재생재를 사용한 보틀이 대기업 음료 메이커의 엄격한 품질 관리 아래에서 회수·선별·재생되어 '보틀 to 보틀'로 유통되고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식품 전락에서 적용하는 경우 페플라스틱의 회수·선별·재생의 각 공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 [그림1]

재생재 시장에서는 식품 용도의 규격을 만족하는 양질의 재생 플라스틱을 둘러싼 엄격한 쟁론도 예상되며 조달력에서 열세인 중소규모의 패키지 메이커의 업계 단체에서도 재고나 유예기간을 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유럽 의원이나 가맹국의 의회 입법화에 해당 하는 뜨거운 의론이 오가고 있다. [KW]



(사)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 사항을 협의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